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 마리루시 (투스캄포교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장철순 스테파노 646. 322. 2139 stfrancis.cj@gmail.com

제1독서 | 이사 55,1-3

화답송 | 시편 145(144),8-9.15-16.17-18(◎ 16 참조)



(후렴) 주님, 당신손을 펼치시 - 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주소 서.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펼치시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 주시나이다. ◎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제2독서 | 로마 8,35.37-39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알렐루야.

복음 | 마태 14,13-21

영성체송 |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성가 | 입당 64 예물준비 510(511)
영성체 166(165) 파견 61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밧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김예경 안젤라 Helene, Johansson
- 김승진 리처드의 영혼을 위하여
- 김철영 미카엘
- 노해영 리오바 영원한 안식을 위해
- 홍계봉 요안나

- 박현진 스테파노의 영혼을 위하여
- 박채균 요셉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 원근자 체칠리아
- 도로시 다비스 영원한 안식을 위해
- 도로시 다비스 영원한 안식을 위해

생미사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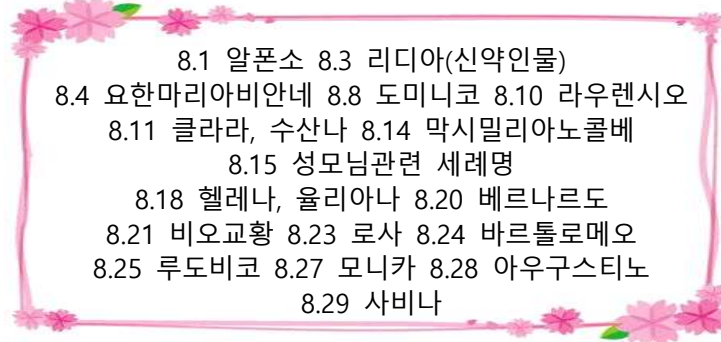
- 성령기도회원들의 영육건강
- 하늘처럼 성가대
- 석귀순 마리아, 김구태 베드로의 건강을 위해서
- 김구성 암브로시오, 배봉주 브리짓다
- 김동현, 김지한, 은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 김수현 크리스티나의 건강한 아기 출산을 위해서
- 김정민 클라라
- 양미숙 마리아, 김효진 율리안나, 진경란 모니카 영명축일
- 이진우, 이민재 영육간의 건강
- 다니엘, 에스델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8월 2일	백이백	김진섭	전푸름	김진섭 전푸름	김종선 진서윤	김수현 최예준
8월 9일	김유화	민완준	이경자	민완준 이경자	유정옥 정다경	정루하 김도이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소성전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마리루시

- * 본당 헌혈 행사로 오늘 친교모임 없습니다.
- * 8/4(화)-8/6(목) 수녀님 휴가로 사무실 업무는 이후에 가능합니다.

8월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산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718-344-9790 정기열 프란치스코

< 이탈리아 성지 순례 >

주제: "성 프란치스코를 따라서"

- * 일시: 2026년 11월 2일 ~ 11일 (9박 10일)
- * 순례지: 이탈리아(로마-리에티-아씨시-라베르나)
- * 영적 지도: 이웅희 루카 신부님
- * 신청 및 문의: 마리아투어 212-594-7773
- * 신청시 준비: 여권 사본, 신청비 \$1,000, 선착순 35명
- * 비용: \$ 3,000 + 항공료 + 공동경비 € 100

2027년 달력 광고비 납부

2027년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달력광고를 신청하신 분들은 기한 내 납부 부탁드립니다.

신청마감: 8월 30일(주일)까지 광고게재비: \$200

납부처: 재무 데스크

* 광고신청 확정된 분들은 달력에 게재할 광고 시안을 8/16일까지 seoulsb@gmail.com(Sr.마리루시)로 보내 주세요.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일시/장소: 8월 15일(토) 5:30PM, 윗성당(upper Church)

* 미사지향 봉헌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2027년 부활 세례/견진성사 희망자 모집

대상: 1)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예비신자)

2) 세례를 받은 사람 중 견진 희망자

(다른 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분은 세례증명서 제출 필수)

모집기간: 2026년 8월 30일까지

교육기간: 2026년 9월 13일- 2027년 3월 29일(6개월)

신청 방식: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양식신청 및 제출 seoulsb@gmail.com)

신청/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 2027년부터 세례 받으시는 분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동시에 받습니다. 또한 2027년 이전 세례받으신 분들은 견진성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6년 하반기 청년피정

주제: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물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루카 5,11)

일시: 9/18(금) - 9/20(주일) (2박 3일)

장소: Seminary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참가비: 얼리버드(-7/30) \$280, 일반 \$330

신청마감: 8월 30일까지

문의사항: 929-660-4456(청년분과장 진현종 빈첸시오)

뉴욕/뉴저지 제 10차 선택 주말

: NY/NJ Choice Weekend

날짜: 9/5일 (토) 10:00AM

- 9/7일 (월) 3:00PM

대상: 1988 - 2004년생

청년 미혼 남녀(한국어권, 영어권)

장소: 뉴튼 수도원

St. Paul's Abbey Rt 206, Newton, NJ 07860

신청: www.choicenynj.com (7/20 - 8/7, 선착순 30명)

문의: choicenynj@gmail.com

917-363-0455(대표봉사자 박지은 안나)

참가비: \$275 (\$50 non-refundable deposit)



오늘의 말씀

"그것들을 이리 가져 오너라." (마태 14.18)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 신앙의 선조들을 찾아서

124위 복자 : 복자 김진후 비오
(1739-1814)



충청도 면천 솔피에서 태어난 김진후 비오(1739~1814)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증조부이자 순교자 김중한 안드레아의 부친이다. 족보에는 이름이 '운조(運祚)'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이준창 루도비코 곤자가에게서 교리를 전해 들은 만아들을 통해 신앙을 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세속에 대한 미련으로 신앙을 거부했지만, 자녀

들의 노력과 주님의 은총으로 마침내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었다. 신해박해 때 여러 차례 투옥과 석방을 겪었으나 1805년 다시 체포된 이후에는 끝까지 배교를 거부하고 신앙을 증거하며 해미 옥에 갇혀 10년간의 옥살이를 견뎌냈다. 그러다 1814년 75세의 나이로 옥중에서 선종하였다. 그의 신앙과 인내는 후손들에게 이어져, 증손자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를 비롯한 신앙 가문의 토대가 되었다.

성화·김형주 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출처: <의정부주보>, No. 1193, 가해, 2026. 08. 02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 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EST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로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I:I 맞춤 방문 간호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투약·검진·돌봄)
happyhomecare.rn@gmail.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다시 만난 신약 성경

바오로

안소근 실비아 수녀(성도미니코 선교수녀회)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사도 1,8)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교회 공동체는 박해가 시작되면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하고(사도 8,1-3 참조), 그 이후에는 페니키아, 키프로스, 시리아로도 신자들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13-28장에서는 주로 바오로 사도의 선교 여행들에 대해 전합니다. 사도행전은 바오로 사도의 죽음에 대해 전해주지 않습니다. 이 책은 바오로의 전기라기보다는 복음 전파에 대한 기록이지만, 이제 우리가 읽을 사도행전 후반부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서간들을 이해하려면 바오로 사도의 일생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가능한 한 간단하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를 생략하고 일반적인 의견을 따르면서, 바오로 사도의 일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오로 사도가 쓴 것도 아니고 저자가 편의상 편집한 부분도 있을 것이어서, 때로는 서간들을 우선하여 그의 생애를 알아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타르수스에서 태어난 그는 출생 배경에서부터 이미 여러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바오로도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울’과 ‘바오로’라는 그의 두 이름은 그의 문화적 배경들을 드러냅니다. 사울 임금에게서도 알 수 있듯이 ‘사울’은 셈어적인 이름이고 ‘바오로’는 그리스-로마적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킬리키아의 타르수스에서(사도 21,39) 기원 후 5-10년경에 태어났습니다. 타르수스는 지중해 북동쪽에 자리한 킬리키아의 수도로서 헬레니즘 문화의 학문 중심지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유대인이었지만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그의 편지들은 모두 그리스어로 작성되어 있었고,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도 70인역 그리스어 본문을 사용합니다. 타르수스는 로마의 자유 도시였기에 바오로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황제에게 상소하여(사도 25,1-12)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는 열렬한 유다교 신봉자였습니다. 사도 22,3에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에게서 율법 교육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바오로 서간에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친서들을 볼 때 그는 오히려 그리스 문화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그는 열심한 바리사이였습니다(필리 3,5-6 참조).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박해하느라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사도 9 참조). 그 후에 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제1차 선교여행을 한 다음(사도 13,1-15,35) 사도들이 이방인 선교와 관련하여 예루살렘에서 사도 회의를 갖게 되며, 제2차(사도 15,36-18,22)와 제3차(사도 18,23-21,16) 선교여행 후에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체포된 다음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떠납니다. 사도행전은 바오로 사도가 로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끝나고, 그 후 64년경에는 바오로 사도가 네로 황제에 의하여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순서만 살펴보았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선포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의정부주보>, No.1191, 2026. 07월 19일



그림 묵상

퍼즐의 한 조각 |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를 읽으면, 대책 없던 그들의 간절함과 올인(All-in)한 그들의 희망이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자람도 넘쳐남도 서로의 모서리를 잇대지 못하고, 대소완급(大小緩急)도 제대로 모르는 우리들의 삶인데, 이 못난 것들을 모아 더 큰 밑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주님의 눈에는 아직 찾지 못한 퍼즐 조각이 있는가 봅니다.

글 · 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 출처: <서울주보>, 제2623호, 2026년 8월 2일(가해))